



스포츠 포커스

광주시 서구청 펜싱팀

자율 훈련 · 강한 조직력 '최고의 검객' 이어 간다

박종환

최은숙



사진 왼쪽부터 김동민·구교동·정근현·박종환선수, 최은숙·강영미·김미정 선수, 박광현 감독.

어텐션(차렷)-세루(인사)-에트부프레(준비됐나)-아레(시작)
지난 2일 광주시 서구 영주동 국민생활관 지하 광주시 펜싱 연습장, 서구청 소속 김미정(여·31)과 최은숙(여·22)이 피스트(코트) 중앙에서 서로를 매섭게 노려보며 연습시합을 준비하고 있다.

맞춤식 훈련... 능률 '쑥쑥'

칼 끝을 서로 맞대다가 김미정의 날카로운 공격을 최은숙이 피하며 반격을 한다. 전진과 후진스텝을 밟으며 기회를 노리는 양 선수의 검이 찰나를 놓치지 않는다.
게임이 끝나고 마스크를 벗자 두 선수의 이마에선 붉은 땀방울이 흘러 내린다.



건을 갖춘데다 큰 키에 비해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다. 팀 동료 강영미(여·23)도 지난 2007년부터 줄곧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다.
김나은(여·22) 역시 국가대표에 뽑히지는 않았지만 전국 정상급의 실력을 자랑한다.

지난 2일부터 동계 훈련 돌입

창단됐다. 북성중-석산고-동아대-수산대-호남대 등을 거친 박 감독은 고3때 국가대표에 발탁돼 3년간 태극마크를 달았고, 88년~90년까지 다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.
하지만 박 감독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내지는 못했다. 이러한 아쉬운 경험을 살려 선수들을 강하게 조련했고, 부임 1년만인 1992년부터 각종 전국대회 패권을 차지하며 서구청을 펜싱

에 빼 최강자로 등극시켰다.
남자부는 코치겸 선수인 구교동(36), 김동민(36), 정근현(27), 박종환(24) 등 4명으로 구성됐다. 여자부보다 늦게 출발해 아직은 전국 최정상급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는 듯했지만 언제든 우승을 따낼 수 있는 전력을 갖췄다.
박 감독은 지난 2006년까지 감독겸 선수로 활동하며 은메달을 획득하는 기업을 토하기도 했었다.
지난 2002 세계펜싱선수권 개인2위, 단체전 3위, 2002 부산아시아인게임 단체 3위 등 각종 세계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했던 구 코치는 선수 겸 코치로 활약

하고 있다.
제 89회 전국체육대회 후 풀 뜻 같은 휴가를 마치고 지난 2일 처음 소집된 선수들의 얼굴에서는 아쉬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.
서구청만의 독특한 훈련방식이 있기 때문. 박 감독은 "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외로워야 한다"고 선수들을 채찍질 한다. 그렇다고 스파르타 식으로 몰아 부치지 않는다.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자발적 훈련을 한다. 그래서 선수들은 12시 훈련이면 대개 11시 30분쯤 모여 몸을 풀고 본 운동을 12시에 들어갈 정도로 훈련 시간에 낭비가 없다.
운동장을 뛰거나 스트레칭, 웨이트를 할 때도 무

김미정·최은숙 '태극마크'

조건은 없다. 개인 체력에 맞춘 운동을 한다.
김미정은 "우리 팀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알아서 자신에 맞는 운동을 할 수 있다"며 "강한 팀워크와 자율이 서구청팀의 최대 강점이 고 타 팀이 부러워 하는 점이다"고 말했다.
박 감독의 술선수법과 자율, 선수들의 운동에 대한 집념과 열성, 여기에 전주인 서구청장의 헌신적인 지원이 보태져 서구청 팀은 전국최강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. 특히 전 청장은 선수들의 최대 숙원이었던 합숙소(아파트)를 내년에 마련해주는 등 선수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. 2009년에도 정상에 군림하기 위한 서구청 선수들의 검이 겨울의 찬 공기를 가르다.
/최재호기자 lion@kwangju.co.kr
/사진=나영주기자 mjna@kwangju.co.kr

Advertisement for 'Small Meeting Big Support' (작은만남 큰기쁨)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with contact information.